

#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생의 실습소속감 경험: 학습연계과정

김 미 영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학대학 간호과학부 전임강사

## Experience of Belongingness at Apprentice Course for Advanced Practice Nurse: Learning-connected Process

Kim, Miyoung

Full-time Lecturer, Division of Nursing Science, College of Health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rocess of belongingness experienced during the apprentice course for advanced practice nurse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15 people, who attended the apprentice course for advanced practice nurse, from three schools in Seoul from Jan. 19 until Feb. 25, 2010. The constant comparative method was adapted for data analysis. **Results:** The core category of this study was the 'learning-connected process' and this process was categorized into three stages. These stages were: going along with the atmosphere, exchanging, and integrating. During the course, the 'uncomfortable participation' as the central idea meant a sense of responsibility and a tension about practice learning of the participant and was influenced by the quality of interaction and the distinct instruction of learning contents. Belongingness was characterized by the Joyful and happy participation which linked to the motivation of new learning opportunities. **Conclus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re is a process to belongingness and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belongingness and learning. Further studies would suggest exploring the components of belongingness, a concept analysis and incorporating the belongingness scale with other qualitative research on this topic.

**Key Words:** Advanced practice nurse, Belongingness, Nursing education, Qualitative research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 APN)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력이 양성되고, 이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활용되어야 한다(Kim, 2006).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생을 위한 교육의 일차적인 목적이 전문가적 간호

실무 제공자로서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간호와 간호 관련 학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대상자에게 상급간호실무를 제공하는 것이다(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2004, May). 따라서 실무전문가 양성이라는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습교육은 적절한 실습기관과 실습지도 프리셉터를 확보하여 학생실습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학생의 전문능력을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습 교육 방법과 자료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2005).

**주요어:** 전문간호사, 소속감, 간호교육, 질적 연구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im, Miyoung, Division of Nursing Science, College of Health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Tel: 82-2-3277-6694, Fax: 82-3277-2850, E-mail: mykim0808@ewha.ac.kr

투고일 2010년 5월 6일 / 수정일 2010년 7월 29일 / 게재확정일 2010년 7월 30일

사회, 심리적 문헌에 의하면 인간이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은 인간이 추구하고, 활동하고, 사고를 유도하게 하는 기본적인 인간 동기로서 이러한 소속감 욕구를 얻지 못하면 정서, 심리, 행동, 신체적으로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낸다(Levett-Jones, Lathlean, Maguire, & McMillan, 2007). 여기에서 실습소속감이란 개별적이고 맥락적으로 심오하게 매개되는 경험으로 (1) 개인이 집단구성원으로서 안전하고, 수용하고, 가치있고 존경을 받는다는 정도, (2) 집단에 연계되어 있거나 통합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 (3) 학생의 전문적, 개인적인 가치가 집단의 가치와 조화를 이룬다고 느끼는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Levett-Jones, Lathlean, & Higgins, 2009). Levett-Jones와 Lathlean (2008)은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소속감이라는 렌즈를 통해 재조명한 결과 소속감이 임상실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Maslow (1987) 또한 인정이나 수용과 같은 소속감 욕구가 먼저 충족되지 않으면 자아존중감이나 진정한 자아성취를 얻기 위한 욕구를 성취할 수 없다고 제시하였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학부생이 아닌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생이지만 이들 또한 전문가적 간호실무 제공자로서의 역할 규명을 위한 목표를 위해 소속감과 임상학습간의 관계를 고려해 보는 것은 중요하며, 아울러 소속감에 초점을 두어야 할 당위성을 나타낸다.

임상실습 시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은 실무능력과 학습동기와의 관련성을 갖고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면 학습동기에 방해가 받으며(Levett-Jones & Lathlean, 2008), 자아존중감이 저하되고(Maslow, 1987), 우울(Sargent, Williams, Hagerty, Lynch-Sauer, & Hoyle, 2002)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웰빙과 행복의 감소(Lakin, 2003)를 초래함으로써 소속감 욕구가 학생들의 인지적 과정뿐 아니라 정서적 패턴, 행동적 반응, 건강과 안녕 등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vett-Jones & Lathlean, 2009-a). 또한 간호학 전공 박사과정생을 대상으로 소속감과 인지된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Resop Reilly & Fitzpatrick, 2009)에서 소속감과 스트레스는 유의한 부정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며, Radcliff와 Lester (2003)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소속감과 유사한 개념인 동료 지지가 인지된 스트레스에 중요하고 가치있는 대처 전략임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문헌에서 소속감이 임상실습에 중요하다는 분명한 가정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실습 시 소속감의 의미와 함축성을 제시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또한 국외에서 시행된 심리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도

대부분 양적인 설계를 이용한 연구이어서(Levett-Jones & Lathlean, 2008) 간호학생의 견해로부터 소속감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심층적인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한 것은 소속감과 같은 동기는 진화하는(evolutionary) 특성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집단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피하고 집단관계를 통해 협동하고 조화관계를 유지하며, 집단에 더 지속적으로 소속하고자 하는 욕구를 발달시켜 나간다(Lakin, 2003). 이와 같이 실습에서의 소속감은 실습이라는 특별하고 다양한 맥락 내에서 경험하는 정도에 따라 발전하는 과정(process)으로 이해되며 이는 근거이론이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실체(ever-developing-entity)를 추구(Glaser, 1992)하고, 사건을 하나의 과정(process)으로 보는 근거이론의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이러한 소속감은 소속된 환경 내에서 대인관계의 강화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Winter-Collins & McDaniel, 2000)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상징적 의사소통에 의해 설명하는 상징적 상호작용주의가 본 연구의 철학적 토대를 이룬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생이 실습 시 소속감에 대한 느낌은 어느 정도이며, 소속감과 학습과는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지 탐색해 봄으로써 실습소속감 경험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실체이론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생의 실습 적응과 실습교육에 대한 소속감의 영향력에 가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생의 실습소속감에 대한 경험을 기술하고 탐색하는 것이다.
- 이런 실습소속감 경험과정에 대한 실체이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생이 실습 시 느끼는 소속감의 의미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얻고자 자료수집과 분석 과정을 위한 방법론적인 틀로서 Strauss와 Corbin (1998)의

근거이론방법론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 2. 연구참여자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시내 전문간호사 대학원 과정에서 실습교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학생으로 이들이 간호사로 소속해 있는 3개의 대학병원 간호부의 협조를 통해 편의표본추출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수는 15명으로 15번째 참여자를 면담하였을 때 분석한 자료로부터 더 이상 새로운 범주가 나타나지 않아 면담 후 자료수집을 완료하였으며, 이는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표집한 숫자였다. 또한 면담 중반을 넘어 자료로부터 도출된 개념에 근거하여 이론적으로 표본추출(Corbin & Strauss, 2008)을 시도하였다. 실습교과목을 이수한 학기가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실습소속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연령과 실습학기 연수를 고려한 표본추출을 하였다.

본 연구참여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관윤리심사위원회(IRB)의 승인 하에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참여자와의 면담 전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연구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자발적인 연구참여 동의와 거부, 중도포기 가능, 발생가능한 이익과 불이익, 녹음기 사용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고 자발적인 동의서를 받아 연구 참여 대상자를 최대한으로 보호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는 현재 3개교의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노인전문간호과정인 8명, 임상전문간호과정인 4명, 종양전문간호과정인 3명이었다. 모두 여성으로 평균 연령은 32세로 27~41세의 범위였다. 현재 직업은 모두 병원간호사였으며 평균 근무경력이 9년으로 5~18년의 범위였다.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밖에 수간호사가 1명, 전문간호사로서 활동하는 간호사가 3명이었다.

## 3.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1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였으며, 참여자들과의 면담 장소는 참여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참여자가 소속한 병원 내 회의실, 연구자의 연구실 등에서 이루어졌다. 15명의 참여자 모두는 1차 면담으로 면대면 면담을 하였고, 2차 면담으로 8명 중 2명은 면대면, 6명은 전화를 이용하여 면담을 시행하여 총 23회의 면담횟수를 가졌다. 면대면 면담에 소요된 시간으로 1차는 평균 45분, 2차는 평균 15분 소요되었다.

면담을 위한 질문은 문헌과 사전 조사를 통해 준비를 하였다. 연구주제가 실습소속감 경험이었기 때문에 면담 초기부터 “실습 시 소속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면담이 진행하면서 “소속감을 느꼈다면 소속감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와 같이 느낌의 순간을 기술하도록 질문하였다. 또한 2차 면담에서는 선택적 질문으로 “일부 참여자의 경우 실습 시 소속감과 관계없이 학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와 같이 연구결과를 타당화하기 위한 질문도 하였다. 면담 내용은 녹음한 후에 연구자가 직접 필사하였다.

##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지속적 비교방법과 같은 근거이론방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Strauss & Corbin, 1998). 자료수집과 분석은 두 번째 면담 이후로 동시에 순환적으로 시행하였다. 코딩에 앞서 연구자는 전체 그림에 대한 감각을 얻기 위해 원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음으로써 자료에 몰입하였다. 개방코딩에서는 줄단위 분석을 통해 개념을 확인하고 자료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지속적인 비교 과정을 통해 개념들이 더 큰 범주로 통합되었다. 축코딩에서는 범주 간의 관계가 확인되고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확인하는 선택적 질문을 통해 패러다임 모형이 확인되었다. 범주를 더욱 추상화하는 과정을 통해 핵심범주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정단계가 제시되었으며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각 과정단계 및 범주간의 관계를 제시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생의 실습소속감 경험 모델이 출현하였다(Figure 1).

## 5. 연구결과의 질 평가 기준

본 연구는 연구결과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Corbin과 Strauss (2008)의 10가지 기준을 따랐다.

첫 번째 기준은 연구결과의 적합성으로 연구결과가 참여자의 경험적 측면에 들어맞는지에 대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두 명의 연구참여자에게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을 때 연구자가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두 번째는 연구결과의 적용가능성 또는 유용성으로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이수한 졸업생에게 본 연구의 결과를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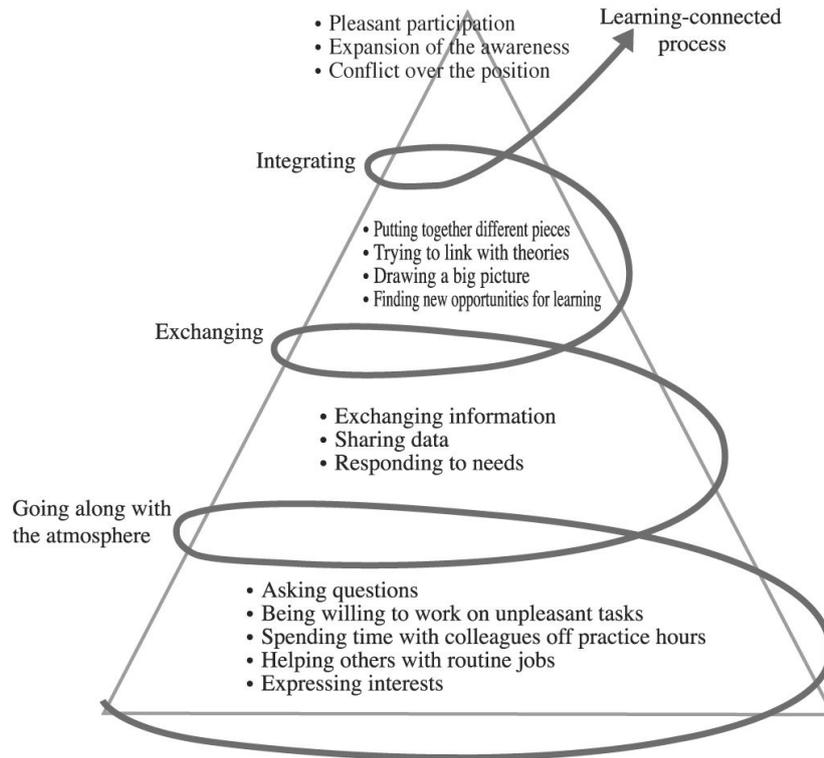


Figure 1. A model for experience of belongingness at apprentice course for advanced practice nurse.

하였을 때 실습 시 학습을 연계하는 과정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달하였기 때문에 쉽게 납득할 수 있다고 제시함으로써 실습경험에 따른 전략적 발달이 학생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세 번째, 네 번째 기준은 연구결과에서의 개념들이 참여자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고, 개념의 맥락화를 통해 잘 이해될 수 있는지의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연계과정을 설명하는 중심적인 개념들을 제시하였으며, 개념의 맥락화를 통해 소속감의 의미가 갖는 연계적 특성이 학습을 성취하기까지의 과정을 3단계 과정을 통해 어떻게 연계되어 설명되는지 제시하였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준은 논리와 깊이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이나 분석이 방법론적인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소속감이 실습에서 기본적인 인간 동기임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단계를 통해 제시하였다.

일곱 번째 기준은 다양성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속감이 없어도 학습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일부 참여자의 특성을 설명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덟 번째 기준은 창의성으로 참여자의 소속감이 임상실습을 위한 기본 전제가 된다는 설명은 실습교육의 방향을 제공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아홉 번째 기준은 민감도로서 분석 과정 동안 이론적 표본추출을 통해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연구자가 면담과정에서 연구자의 선입견과 주장을 나타내는 문장이나 대화의 내용은 없었는지 성찰하였다.

열 번째의 기준은 메모의 증거 자료로서 본 연구자는 참여자와의 면담이 끝날 때마다 요약적으로 설명하는 메모를 통해 연구개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분석적 자료로서 이용하였다.

## 연구결과

본 연구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생의 실습소속감의 정도와 소속감 경험 과정을 설명하고자 근거이론방법의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참여자들의 소속감의 정도는 높은 수준으로부터 낮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지

만 소속감과 학습과의 관련성은 소속감 경험 과정을 이해하는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생의 실습소속감 정도

참여자들은 실습 시 소속감을 느꼈을 때는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꼈으며, 실습기관에 있는 직원과 대상자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느낌이었다. 그러한 느낌을 받지 못했을 때 ‘붕붕 떠있는 느낌’, ‘떠다니는 느낌’, ‘던져놓은 느낌’, ‘기름과 물의 느낌’과 같은 부유감으로 표현하였다. 일반적으로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편안함을 얻기까지에는 최소한 2회 이상 방문을 하였을 때 편안함을 느낌으로써 방문횟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그러나 실습 방문이 연속성이 없을 때 다시 라포를 형성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때로는 대상자를 연계적으로 볼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방문 횟수가 증가하면서 실습기관으로부터 학생들에 대한 인식을 갖기 시작한다고 느꼈고, 주위 상황에 친숙해지며, 무엇보다 케이스를 할당 받아서 대상자를 만나고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였을 때 소속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방문횟수, 방문의 연속성도 소속감을 갖는데 중요하였지만 학교 소속을 알리는 가운이나 명찰을 통해서도 소속감을 느꼈다. 한 참여자는 실습 시간의 양적인 측면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질적인 측면도 제시하였다.

하루종일 어디에 몸을 뒹굴지 몰라 서성거리다가 돌아가는 날은 굉장히 속상하지요. ‘우리가 왜 왔지?’, ‘이게 무슨 실습이야’ 그랬거든요. 공간 안에 탁 던져졌지만 했거든요. 환자를 어떻게 봐야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실습지도 선생님은 저희가 처음에 가면 기관에 관한 설명만 간단히 하고 그 이후에는 전혀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참여자5)

실습기관은 한 1/2 정도 진행되고 있을 때 제가 실습지에 가는 것이 편안하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 두 번 낯설고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고. 장소나 거리감도 있고, 주변 상황 파악도 잘 안되고, 같이 실습을 나가는 학생들과도 평소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참여자1)

실습 때도 일주일에 한 번 도니까 계속적으로 볼 수 없는 실습이어서 아쉬움이 있어요. 실습 시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까지 볼

수 있다면 언어가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연계적으로 보는 것이. (참여자7)

반면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로는 실습지도 프리셉터가 가르쳐야할 교과목을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르치려는 열의를 보이지 않을 때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였으며, 아울러 실습지도 프리셉터의 배려와 관심을 통해 아래 직원들의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실습기관 직원들과의 면식 유무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일부 참여자는 시간적인 가치를 통해 비교하였는데 휴가를 내어 투자한 시간에 비교해 보면 소속감을 느낄 만큼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시간을 쪼개서 나갔는데 그 사람들은 저희를 챙겨주지 않잖아요. 챙겨 주는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지만. 내가 팀장님한테 실습에 대한 사유를 말하고 제 휴가를 내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소속감을 느낄 정도로 비교해 보면 크지 않았어요. (참여자9)

### 2.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생의 실습소속감 경험에 대한 패러다임 분석

본 연구의 모든 참여자들은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간호사로 전문간호사가 되겠다는 자발적 동기를 갖고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그러나 이론 학습에 필요한 시간 이외의 실습 학습을 위해 직장으로부터 협조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다. 또한 실습현장에서는 전문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지 않아 새로운 전문간호사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소속된 학교의 대학원생으로서 실습현장의 대상자와 주변 사람의 기대치를 인식하였을 때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긴장감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실습에 임하는 참여자들의 중심적인 생각에는 ‘편안하지 않은 참여’라는 의미가 절대적이었다. 여기에 실습에서의 명확한 역할과 지침이 제시되지 않았을 때 실습 참여는 더욱 편안하지 않았다. 편안하지 않은 참여에는 실습지도 프리셉터의 관심과 지지, 동료들의 든든한 관계와 지식교류, 실습 대상자와의 상호작용 등 대인관계로 인한 상호작용의 질이 이러한 맥락적 조건에 따른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실습지도 프리셉터가 의사, 간호사(기관책임자)에 따라 구분이 되었는데 의사인 경우, 배움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지만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였다. 반면 간호사인 경우 소속감을 높이게 하였지만 지식을 얻는데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역

할 모델이 될 수 있는 실습지도 프리셉터의 필요성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시간 활용에 대한 실질함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 있는 실습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초기에는 소극적인 학습태도를 취했지만 실습지도 프리셉터에게 관심을 표명하고, 질문을 하고, 굿은 일 마다않고, 일상적인 업무를 도와 주면서 좀 더 적극적인 학습태도를 취하였다. 동료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실습지도 프리셉터, 동료, 대상자들과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전체적인 연계성을 갖는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실습에서의 소속감을 가질 수 있었고 나아가 학습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참여자들이 소속감을 얻었을 때는 실습을 통해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고 의식이 확대되는 등 새로운 학습기회를 위한 시도를 꿈꾸면서도 한편으로 전문간호사로서의 위치가 확보되지 않은 현실을 통해 자리매김을 위한 갈등과 고민, 스트레스를 갖고 있었다(Table 1).

### 3.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생의 실습소속감 경험 과정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생들의 실습소속감 경험의 핵심범주는 ‘학습연계과정’이었다. 참여자들에게 배움은 성인학습자로서 자의로 선택하여 얻고자 하는 바와 하고자 하는 의도가 크다는 것을 내포하였다. 연계의 의미에는 실습을 통해 시행착오를 거치고, 무의미한 반복적인 실습을 경험한 후 학습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관계로 이어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생들이 학습을 연계해가는 과정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위기 맞추기’, ‘교류하기’, ‘통합하기’의 3단계의 하위과정을 나타냈다. 각 단계별 특성은 핵심범주인 학습을 연계해가는 과정을 이해하도록 돕고 설명을 제공하였다.

#### 1) 분위기 맞추기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다양한 실습기관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또는 팀원 간에 적극적인 학습 분위기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참여자들은 마음을 열고, 자신을 먼저 소개하고, 배움의 의지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왔다는 동기가 있음을 알리는 등 ‘관심 표명하기’를 통해 접근을 하였다. 이러한 관심을 알리기 위해 실습지도 프리셉터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질문을 준비하였다. 새로운 실습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선배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문헌을 찾아보는 등 질문을 준비하고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준비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실습과목을 이수하면서 실습 초기에 질문을 주고받았을 때 실습지도 프리셉터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고 분위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어느 정도 자신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의식적인 노력,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감수하였다.

저희를 인솔하는 사람과 의사소통하려면 제가 홈페이지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있지만 그 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기 전에 한, 두 가지 질문할 것을 생각한다는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해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은 준비하고 생각하고 가거든요. (참여자1)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모르는데 더 알려달라고 질문을 하고 적극성을 띄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실습을 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태도로 좀 바꾸면 다르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참여자7)

또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실습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자의반 타의반 참여하지만 실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업무에 참여하고 도와주는 경우’에 마음이 편안하고 환경에 더 빨리 친숙할 수 있고, 더 많이 습득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일부 참여자의 경우 실습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것은 대학원 학습목표와 거리가 멀다고 표현하였다.

저는 실습기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일상적인 일을 도우려고 해요. 필요하면 활력징후 측정하고, 기저귀 갈아주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일을 하면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그 다음 내가 질문을 하면 더 대답을 잘 하고, 내 스스로 알아차려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더 마음이 편해요. (참여자3)

저희도 프리셉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는데 피해를 주지 않고 영역을 지켜주면서 도움을 주려고 하지요. 예를 들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같이 분위기를 업 시키는 것과 분위기를 이끌도록 도와 주는 것. (참여자10)

참여자들은 동료와의 좋은 팀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실습 시간 이외의 시간을 가지며’ 팀워크를 다졌다. 특히 동

Table 1. Categories Analysis of Paradigm Model

Subcategories	Categories	Paradig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eking to expand lack of own knowledge</li> <li>· Having a strong desire for life</li> </ul>	Choosing the voluntary motivation  Sharing valuable time	Casual condi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gretting for the use of time</li> <li>· Getting upset over the wasted tim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eeling the strain to meet people's expectations</li> <li>· Being responsible for establishing the recognition of professional nurse</li> <li>· Being responsible for their schools</li> </ul>	Unpleasant participations	Central phenomen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eeling comfortable when the role is clear</li> <li>· Feeling anxious when there is no specific instruction for duty</li> </ul>	Instructions guiding learning contents	Contextual condi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ceiving interests and support of practice preceptor</li> <li>· Having a strong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and exchanging information</li> <li>· Satisfying the needs of practice subjects</li> </ul>	Quality of interactions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specting and caring for students</li> <li>· Delivering the knowledge essential to learning</li> </ul>	Roles of practice preceptor	Intervening condi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aving the significance of a certain period of practice to adjustment</li> <li>· Feeling comfortable by care of employees at clinical site</li> </ul>	Comfortable practice enviro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aving the team image influenced by absence and tardiness of colleagues</li> <li>· Being stimulated by colleague's active activities</li> <li>· Feeling unpleasant by colleague's opportunistic attitude</li> <li>· Having the learning atmosphere disturbed by complaining colleagues</li> </ul>	Effects of the colleague's attitud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aving a sacrificing mind for others</li> <li>· Having a clear goal</li> </ul>	Personal ability of stud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eparing for questions</li> <li>· Approaching with questions</li> </ul>	Asking questions	Action, interaction strateg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hanging myself firstly</li> <li>· Taking the initiatives of hard work, and becoming an example for others</li> </ul>	Being willing to work on unpleasant tas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liminating the misunderstanding</li> <li>· Sharing personal stories</li> <li>· Having pre-practice meetings</li> </ul>	Spending time with colleagues off practice hou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elping the preparation for program</li> <li>· Understanding the work environment</li> </ul>	Helping others with routine jo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howing the voluntary motivation</li> <li>· Introducing myself first</li> </ul>	Expressing interes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sing the background knowledge of colleagues</li> <li>· Sharing the hardship</li> </ul>	Exchanging inform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assing the previous data</li> <li>· Uploading data on the website</li> </ul>	Sharing da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sking for the required direction</li> <li>· Doing the best for the needs</li> </ul>	Responding to nee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derstanding by connecting to related study field</li> <li>· Thinking in every direction</li> </ul>	Putting together different pie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xercising the practice experience at clinical site</li> <li>· Applying the theories to practice</li> </ul>	Trying to link with theo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earning pros and cons through practice attitudes of undergraduate students</li> <li>· Observing it a step behind</li> </ul>	Painting a big pic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upplementing the weakness</li> <li>· Learning as experiencing difficult situations</li> </ul>	Finding new opportunities for learning	

Table 1. Categories Analysis of Paradigm Model (Continued)

Subcategories	Categories	Paradig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eing happy about the closeness with subjects</li> <li>· Greeting happily at clinical site</li> </ul>	Having pleasant participations	Consequen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aving a new viewpoint</li> <li>· Understanding the need of constant learning</li> <li>· Having interests in instructing practice students</li> <li>· Widening the vision</li> </ul>	Expanding the aware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aving conflicts for role changes</li> <li>· Realistically lacking the distinctive strategy for rights and interests of professional nurse</li> <li>· Envyng the position of advanced professional nurses</li> </ul>	Having conflicts over positions	

료들은 대학원과 직장을 병행하는 고충을 가장 잘 이해하며, 다양한 직장과 경력 배경을 갖고 있어서 서로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 또한 학기가 높은 선배들은 술선수범하여 실습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어렵고 힘든 대상자를 담당하는 등 ‘긋은 일 마다 앓기’ 태도를 보임으로써 동료들이 실습 시 소속감을 갖게 하는 동기부여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동료들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생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었다.

어차피 같은 실습 조원이고 ‘내 그룹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지 몰라도 서로 많이 친해지려고 해요. 실습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 기간 안에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하려면 우리끼리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리엔테이션 하기 전에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당일 날 일찍 만나 서로 소개도 하고 조금 친밀감을 얻고 실습에 들어가요. (참여자12)

어르신인 경우 불평이 많고 귀찮아하는 대상자들도 있는데 그런 어려운 대상자를 먼저 담당하고, 설명하는 것을 보여주는 태도, 몸이 불편해 하는 사람들의 식사를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케이스를 맡아 주는 모습을 보면서 선배들의 술선수범하는 태도를 배워요. (참여자6)

## 2) 교류하기

참여자들은 실습기관에서의 분위기가 조성되면 실습지도 프리셉터, 실습기관 간호인력, 실습대상자, 동료들과의 ‘정보교환하기’, ‘자료 공유하기’를 통해 의사소통을 교류하였다. 참여자들은 실습을 통해 사람들과의 상호 피드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파악하고 있었다. 이 중 실습지도 프리셉터와의 의사소통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실습지도 프리셉터가 간호사가 아닌 의사들의 경우 의사들의 전문간호

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나 관심, 방향에 대해 대체로 거리감이 있음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전문간호사 과정을 거친 실습지도 프리셉터의 경험이나 실습기관에서의 실습지도 프리셉터의 역할모형을 통해 실습의 의미를 새기고 있었다.

설명할 때 환자들에 대한 애정이 한마디 한마디 묻어나고 환자를 소개시켜 주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가서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접촉할 때 대상자를 만나는 짧은 순간에도 대하는 태도 등 평소 습관이 드러나는데 그 때 ‘이 실습기간에서 실습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참여자14)

프리셉터가 전문간호사의 경우 굉장히 역할모형이 되려고 노력하고 환경과 역경을 뚫고 전문간호사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도움이 되고 나도 그러한 길을 가야되겠다고 생각하고. (참여자10)

실습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상호교류는 실습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들 뿐 아니라 실습대상자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특히 실습대상자와의 관계 형성 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을 처음 상담해 올 때, 학생에 대한 대상자의 기대가 전달될 때, 대상자가 기억력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기억을 하고 환대할 때, 대상자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와 닿는 감동을 느꼈을 때 등 실습대상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이는 실습에서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한편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대상자들로부터 피드백을 전혀 받지 못하기도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근무배경을 이용하여 실습기관의 간호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실습기관에 참여자들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반영되기도 하였다.

마음에 와 닿는 것. 어르신이 저희들한테 해주는 말 한마디 그게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와줘서 참 고맙다', '말 들어줘서 고맙다' 이런 말 한 마디가 감동이 되고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참여자5)

호스피스 환자한테 들어주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해 주고, '아! 이런 방법이 있나?' 되물어보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참여자9)

치매 노인의 경우 전혀 기억을 못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노인들에게 가면 나를 와고 반기는 게 아니고 무조건 반기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참여자4)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임상경력과 지식은 그 실습기관에서 너무 부족해요. 기다리고 있어요. 필요시 컨설팅을 해야 하는데 상처를 가진 사람을 보여주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지요. 그 사람의 배경이 실습지에 상당히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참여자8)

참여자들은 동료들이 모두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공통적인 속성이 많았으며, 실습을 통해 함께 준비하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많아서 친밀감을 쉽게 유지하고, 이해와 정서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었다. 특히 실습에 대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같은 실습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느낌도 서로 공유하였다. 또한 학습 파트너로서의 역할로서 실습기관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정보 공유, 자료공유, 케이스 대상자에 대한 의견 교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동료들과는 경쟁적이라기보다는 상호협동적이고 지지적인 특성을 나타냈다.

환자에 대해 각각 맡아서 준비를 할 때 정말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서로 나누게 되고 정보를 조금씩 주고받으면서 답이 풀리기도 해요. (참여자13)

뒤로 가면 갈수록 경험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같은 실습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생기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실습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보를 공유하지요. 서로 쉽게 통하니까. (참여자2)

저희 학기끼리만 운영하는 카페가 운영되는데 처음 팀이 전 반적으로 정보를 그 카페에 올리고, 그 다음 팀이 버전을 높이고,

실습지에서 밥을 어떻게 먹고, 케이스의 초점 등에 대해 전부 다 카페에 올렸어요. 공통적인 질문은 다른 학생의 자료를 참조하기도 했어요. 저희는 자료방이 따로 있어서. (참여자 15)

### 3) 통합하기

참여자들은 실습 초기에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실습환경의 분위기를 맞추고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이론에서 배웠던 것이 실습에 적용이 되기도 하고 실습 대상자와의 경험이 직장 현장에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이론과의 접목을 시도'하게 되었다. 실습에서는 책에서만 보던 광범위함 보다는 구체적이면서 더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지식기반을 갖추고 있어도 적용할 수 없다는 원리를 터득하였으며, '같이 있어주기'의 간호중재를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교과서를 통해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치매대상자의 잔존능력을 확인하는 기쁨을 얻었다.

실습을 통해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를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실습기관에 가서 많은 것을 가서 배웠으면 해요. 실습기관에 오면 얘기로만 들었던 환자들의 실제 모습을 보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실제 병원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실습기관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되어 적용하기도 해요. (참여자9)

실습에 가셔도 천천히~~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것을 느끼고 보려고 하는. 지금까지 이론을 통하여 접하기 어려운, 경험하지 못한 시간. (참여자11)

대상자를 관찰하면서 같이 있어 주는 것의 위력을 느꼈고, 실제교과서에서 배운 것 이외의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기회를 가졌어요. 예를 들어 치매대상자의 경우 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참여자14)

실습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청진을 하게 된 것 안 들리는데 '이 소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장음을 배우고 나갔는데 장폐색이 있는 환자의 장음을 들으면서 사정을 해보고 현장에서 적용을 해보는 기회를 가졌어요. (참여자13)

또한 실습을 통해 대상자의 입, 퇴원과 검사 등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여기 저기 흩어져 있던 지식이 퍼즐처럼 맞추어지기도 하면서 '부분 부분을 엮어가고' '큰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무엇보다 직장에서 대상자를 보는 시야가 확대되었고 부분보다 전체를 조망하고 통합하는 틀을 갖기 시작하였다. 배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갖게 된 것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원리를 터득한 이후였다. 또한 대상자를 전체적으로 보기에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어 ‘새로운 학습기회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1학기에는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3, 4학기 때는 내 업무와 연관을 시키고 매치시키고 실제로 변화를 주고, 업무 부분에 적용하려고 하고. 너무 여기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곳도 살펴봄으로써 많이 확대되어 가는 것 같아요. (참여자11)

이론이 따로 돌아가고 실습과 같이 갈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본인이 통합을 해야 한다고 봐요. 5학기에 가면 전체를 묶어 보자는 말을 많이 해요. 스스로 실로 엮어서 보자는 입장. 집담회에도 케이스만 파고드니까 통합할 때 공부가 완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후 좌우를 연결하고 싶다, 그런 mind가 통합하고자 하는 갈망, 여기저기서 얻은 것을 엮어가는. (참여자15)

## 논 의

본 연구에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생의 실습소속감 경험을 설명하는 핵심범주는 학습을 연계하는 과정이었다. 학습연계과정에는 시간, 시행착오, 스스로의 의지, 자기주도성의 개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다시 새로운 학습을 얻고자 하는 학습동기로 연계되었다. 학생들은 실습 초기에 학습분위기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며, 다각도로 대인관계를 통한 의사소통을 교류하고, 지식과 기술을 통합해 가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교육과정생들이 실습지 분위기를 맞추고 교류를 하는 과정은 소속감의 중요한 속성으로 Levett-Jones 등(2009)이 제시한 팀원으로서 존중을 받고, 집단에 연계되어 개인의 가치와 집단의 가치를 조화한다는 의미와 유사한 맥락을 나타냈다. 또한 소속감에 대한 개념분석을 통해 소속감의 속성으로 제시한 가치참여와 적합성(fit)의 의미와도 유사하였다(Hagerty, Lynch-Sauer, Patusky, Bouwsema, & Collier, 199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계가 전제되었을 때 실습과 이론을 종합하고 연계하는 통합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는 Maslow (1987)의 5가지 동기적인 위계질서 중 3단계인 소속감 욕구가 전제되지 않으면 4단계인 자아존중감과 5단계인 자아실

현 욕구로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실습에서의 소속감과 학습과는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냈으므로 소속감이 임상실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Levett-Jones과 Lathlean (2008)의 주장에 동의한다. 이는 학생들이 학습을 발달시키기 이전에 소속감의 의미가 먼저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학생들의 소속감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전문간호사로서의 역할 정립에 대한 책임감과 기대치에 대한 긴장 정도에 따라 발전하였다. 일반적으로 간호학생들은 건강케어 시스템의 위계질서 내에서 질문하기보다 순응하는 것으로 또 중요한 이슈에 대해 논쟁을 하기보다 수용하는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Levett-Jones & Lathlean, 2009-b). 그러나 본 연구의 일부 학생들이 실습기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행위는 순응적인 태도로 이해되기보다 긍정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학습에서의 좋은 피드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점을 제시함으로써 일종의 학습효과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소속하고자 하는 이러한 속성은 근본적으로 소속감의 특성을 진화적인 이점으로 설명한 Buss와 Kendrick의 의미(Levett-Jones et al., 2007에 인용됨)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학생은 소속감의 특성인 편안함, 친숙함이 없는 상황에서도 배우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업무 수행을 잘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소속감이 학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주장이 일부 학생에게 적용이 되지 않으며, 욕구별 위계질서를 갖는다는 Maslow (1987)의 이론에도 위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은 일부 학생에 국한된 결과이지만 기존의 이론과 다른 의미를 나타낸 것은 본 연구가 질적 연구로서 개별적인 심층적인 의미분석방법에 따른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또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대학원 과정생이라는 특성에 그 연유를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부생들의 경우 간호과 입학 동기가 대부분 적성이나 사명감보다는 취업률과 부모나 선배들의 권유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Yang & Park, 2004)과 달리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생은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선택했다는 차이를 나타낸다. 즉 일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생은 소속감을 얻기 위해 환경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자발적인 학습 동기유발을 갖는 내면의 힘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습에 임하는 학생들의 중심적인 생각에는 ‘편안하지 않은 참여’가 지배적이었다. 편안하지 않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실습환경의 외적인 요소로서 직장에서의 원활하지 않은 실습 지원 환경, 실습지도 프리셉터의 전문

간호사에 대한 불분명한 인식, 실습내용의 명확하지 않은 지침 등이었으며, 개인적인 내적 요소로서 학생들의 전문간호사 인식에 대한 책임감, 실습 준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긴장감을 갖고 있었다. 학생들의 실습에서의 편안하지 않은 참여는 시간이 지나면서 실습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의지와 긍정적인 긴장 등이 작용하여 동료와 실습대상자, 실습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소통이 일어나는 과정을 거쳤다. Levett-Jones 등(2009)에서는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으로 실습 시 만나는 간호사와의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ship)를 제시하였고, 병원실습에서 가장 어려웠던 대인관계 역시 간호사로 나타나(Yang & Park, 2004) 실습현장의 간호사들과의 관계 유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습대상자의 영향력을 가장 큰 것으로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실습 시 간호대상자들이 간호학생들의 실습을 거부하여 실습교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어 왔지만(Suh, Ahn, & Park, 2009; Whang, 2006)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경력간호사로서 실습을 통해 대상자의 요구에 응대하고 대상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학부생과 다른 이점이 있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소속감을 느낀 결과 학생들은 실습에의 참여가 기쁘고, 대상자와의 친밀감에 대해 행복을 느꼈으며, 더 많은 역할부여를 감당해 낼 수 있는 자신감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속감을 느낄 때 마음이 편안하고 실습환경에 대해 만족스럽고 행복과 같은 정서적인 반응으로 표현한 결과(Levett-Jones et al., 2009)를 지지한다. 또한 소속감의 결과와 학습과의 관련성을 고려해 볼 때 소속감의 영향력은 추후에 전문간호사로서 자리매김을 위한 갈등과 고민을 통해 새로운 도전으로 연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 결과는 실습 시간이 많다는 불만과 의미없는 실습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불만이 많고, 기회주의적이고,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학생들의 태도는 소속감을 갖지 못한 실습 태도로 지목되었다. 일반적으로 소속감을 갖지 못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부적응, 스트레스, 건강문제와 같은 부작용이 제시되었는데(Baumeister & Leary, 1995) 추후연구를 통해 이러한 연관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이전 학기의 경험이 자각을 하게 되는 주요 계기가 되었으며, 성인학습자로서 스스로 길을 개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대상자에게 적용할 유용한 기술의 필요성을 느꼈고 나아가 새로운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더 큰 확신과 신뢰를 갖고 또 다른 새로운 학습에 도전하였다. 여기에서 새로운 학습을 시도하였다는 것은 간호학생들에게 지지적이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임상환경은 학습 시에 더욱 자기 주도적으로 되었다는 의미이며(Levett-Jones & Lathlean, 2009-a), 실습을 통해 학습한 것을 직장에서의 간호현장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응용함으로써 배운 것을 더 잘 이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Knowles (1975 p.14)는 자기주도 학습을 이끌어가는 학습자는 첫째, 가르침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잘 배우며, 둘째, 더 의도적이고 더 큰 동기를 갖고 학습을 하며, 셋째, 배운 것을 더 오랫동안 더 잘 보유하고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자기주도학습의 이점을 강조하였다. 자기주도성은 간호학생에게 임상수행능력을 증진시키는 결정변수로 확인되어 왔다(Lee, Kim, & Sun, 2007; Yang & Park, 2004). 본 연구에서 학생들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생으로의 부담감과 책임을 지는 행위를 더 좋아하였고 그러한 긴장감을 좋은 스트레스라고 표현하였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이전의 실습 경험을 통해 의미 없는 실습을 경험한 후 좀 더 나은 방법을 추구하려는 성인학습자로서의 속성이 학생들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실습에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학적 교육과 실무에 미치는 의의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맥락적 조건이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에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생들은 대인관계를 통한 상호작용의 질이 쌍방향이고 다각도의 관계를 가질수록 또한 실습내용의 지침이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소속감의 중심현상인 '편안하지 않은 참여'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 실습 참여에 기쁨을 갖고, 의식이 확대되는 등 새로운 학습기회를 위한 시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실습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실습지도 프리셉터, 실습대상자, 실습지 직원, 동료들과의 대인관계의 역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소속감이 자아의 지각과 관련이 있고 대인관계 체계 내에서 통합이 된다(Choenarom, Williams, & Hagerty, 2005)는 의미를 뒷받침하며, 소속감을 인간 관계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발전시킨 Hagerty, Williams, Coyne와 Early (1996)의 인간 관계성(human relatedness) 이론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습내용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위해 학교와 실습기관과의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져서 전문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직무개정이 각 실무현장에 잘 반영되어 수행되어야 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핵심범주인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생의 학습연계과정은 소속감을 통해 성인학습자로서 자기주도학습을 수행하고 추후 학습을 위한 동기로 연계됨으로써 실습소속감 및 소속감과 관련한 영향력을 고려하는 것은 가치가 있음을 시사한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생의 실습소속감 경험을 탐색한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범주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생들이 실습을 통해 학습을 연계해가는 과정이었으며 이전의 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성인학습자로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이끌어갔다. 비록 실습에서의 편안하지 않은 참여가 지배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론과 실무를 연계하는 통합적인 시각을 가졌다. 본 연구결과 소속감과 학습과는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냈으며,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생이 학습을 연계하는 과정에는 시간, 시행착오, 스스로의 의지, 자기주도성의 개념이 중심적이었다. 따라서 실습소속감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대인관계를 통한 상호작용의 질과 실습내용의 명확한 지침을 고려하는 것은 추후 실습교육의 방향에 가치있는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추후에 전문간호사의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Baumeister, R., & Leary, M.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 Choenarom, C., Williams, R. A., & Hagerty, B. M. (2005). The role of sense of belonging and social support on stress and depression in individuals with depression.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9*(1), 18-29.
- Corbin, J., & Strauss, A. (200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Glaser, B. G. (1992). *Basics of grounded theory analysis: Emergence vs. forcing*. Mill Valley, CA: Sociology Press.
- Hagerty, B. M., Lynch-Sauer, J., Patuskus, K., Bouwsema, M., & Collier, P. (1992). Sense of belonging: A vital mental health concept.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6*(3), 172-177.
- Hagerty, B. M., Williams, R. A., Coyne, J. C., & Early, M. R. (1996). Sense of belonging and indicators of social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0*(4), 235-244.
- Kim, M. W. (2006). Discussion about the development of institutionalization of advanced practice nursing and its future development. *Journal of Nursing Query*, *15*(2), 35-67.
- Knowles, M. S. (1975).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Chicago: Follet.
-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2004, May). *The role and core competency of advanced practice nurse*. Retrieved February 10, 2010, from <http://kabon.or.kr/kabon04/index03.php>
-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2005). Advanced practice nurse program A to Z. *The Korean Nurse*, *44*(5), 34-39.
- Lakin, J. (2003). *Exclusion and the role of nonconscious behavioral mimicry: The role of belongingness threa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USA.
- Lee, S. H., Kim, M. H., & Sun, K. S. (2007). The clinical competence and related factors of the nursing students: Focused on the subjects who studied problem-based learning. *Journal of Korean Academic of Adult Nursing*, *19*(5), 753-762.
- Levett-Jones, T., & Lathlean, J. (2008). Belongingness: A prerequisite for nursing students' clinical learning. *Nurse Education Today*, *8*(1), 103-111.
- Levett-Jones, T., & Lathlean, J. (2009-a). The ascent to competence conceptual framework: An outcome of a study of belongingness.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8*, 2870-2879.
- Levett-Jones, T., & Lathlean, J. (2009-b). 'Don't rock the boat':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conformity and compliance. *Nurse Education Today*, *29*(3), 342-349.
- Levett-Jones, T., Lathlean, J., & Higgins, I. (2009).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testing of the Belongingness Scale-Clinical Placement Experience: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Collegian*, *16*(3), 153-162.
- Levett-Jones, T., Lathlean, J., Maguire, J., & McMillan, M. (2007). Belongingness: A critique of the concept and implications for nursing education. *Nurse Education Today*, *27*(3), 210-218.
- Maslow, A. (1987). *Motivation and personality* (3rd ed.). New York: Harper and Row.
- Radcliffe, C., & Lester, H. (2003). Perceived stress during undergraduate medical training: A qualitative research. *Medical Education*, *37*, 28-32.
- Resop Reilly, J. E., & Fitzpatrick, J. J. (2009). Perceived stress and sense of belonging in doctor of nursing practice students.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25*(2), 81-86.
- Sargent, J., Williams, R., Hagerty, B., Lynch-Sauer, J., & Hoyle, K. (2002). Sense of belonging as a buffer against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iatric Nurses*

*Association*, 8, 120-129.

- Suh, Y. O., Ahn, Y. H., & Park, K. S. (2009). Content analysis of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judgment during nursing practicum. *Journal of Korean Academic of Adult Nursing*, 21(2), 245-256.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Whang, S. J.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2), 205-213.
- Winter-Collins, A., & McDaniel, A. (2000). Sense of belonging and new graduate job satisfaction. *Journal for Nurses in Staff Development*, 16(3), 103-111.
- Yang, J. J., & Park, M. Y. (2004). The relationship of clinical competency and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0(2), 271-277.